

주요용어 : 임상실습 교육, 스트레스

## 임상실습 교육시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미애\*, 신영진\*\*, 박정숙\*\*, 권삼숙\*\*\*, 권선주\*\*\*, 김신정\*\*\*, 이향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간호교육은 모든 상황에 처한 인간의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간호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문 간호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간호교육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간호학생들이 받는 임상실습 교육은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하여 대상자에게 실제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문간호를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며(Park, 1981),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행동방향을 터득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건강관리 기관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칙적으로 임상실습 교육은 실습현장에 지도교수가 계속 상주하면서 학생을 교육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상 이는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교육이 종합병원이나 보건소 등 실습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간호사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의 현실에서 간호학생은 실습현장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수준의 건강요원들과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대상자를 접하고 그들의 간호문제에 따른 중재를 실제로 수행하게 됨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Jun, 1984; Nam, 1992).

특히 부족한 간호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게 됨으로 간호학생으로서의 지식적, 기술적 한계를 느끼게 됨은 물론이요, 이로 인해 간호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상자들로부터 학생

실습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켜 결국 학생들의 간호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Han & Cho, 1999).

그러므로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충격과 불만을 가능한 줄이고,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며, 심리적 부담감인 스트레스를 줄여 간호학생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임상실습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물론 그에게 간호를 받는 환자에게도 양질의 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간호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자로서 간호사는 전문적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간호학생과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간의 주요 연결자로서 간호실무의 본질을 교육해야 할 뿐 아니라 실습현장이라는 새롭고 당혹스러운 경험에 직면한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지지해야 함으로(McCabe, 1985), 학생에 대한 명백한 이해와 인식 하에 그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실습교육이 최적의 학습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Ko & Kim, 1994).

그리고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근무조건에서도 항상 새롭게 발전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이들의 절적인 간호요구에도 끊임없이 부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대부분의 간호조직은 항상 인력이 부족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며(Gu & Kim, 1985; Kim & Moon, 1992), 이러한 환경에서 간호사의 업무에 충실하다보면 임상실습 교육자로서의 역할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간호사에 대한 스트레스 연구는 대부분이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며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면서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 교육으로 인한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학생들에게는 임상실습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동국의료원 간호감독

\*\*\*동국의료원 책임간호사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간호사에게는 임상실습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업무여건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 교육시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사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임상실습 교육시 간호사 및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파악한다.
- 2) 임상실습 교육시 간호사 및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차이를 속성과 요인별로 비교한다.
- 3) 임상실습 교육시 간호사 및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스트레스

이론적 정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에서 부과되는 환경적 자극과 개인의 내적 요구를 자신이 지각하는 상태로, 개인의 적응능력을 넘어설 때 경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Cho & Park, 1996).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본 도구의 스트레스 정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II. 문헌고찰

### 1. 간호사의 스트레스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사는 간호철학, 가치관이 뚜렷하고 환자 와 모든 간호 대상자에게 성의를 다하며, 동료 간에 협조하고, 책임 있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Sung, 1984).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호직은 같은 시간에 투약과 처치를 하고, 새로운 환자를 입원시키며, 수술을 위해 환자를 준비하고, 간호중재와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의료직원들과도 협조해야 할 뿐 아니라 환자가족의 질문에 대답하고, 의사의 처방을 처리해야 하며,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등 업무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Tierney & Strom, 1980). 그 외에도 간호직은 3교대로 주야를 불문하고 근무하는 직업적 특성과 새로운 지식의 급증, 복잡한 인간관계와 근무조건, 간호수혜자의 질적 간호요구 등으로 다른 전문직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임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Gu & Kim, 1985).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은 의료인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부적절한 대우, 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불충분한 자원, 업무량 과중, 의사와의 업무상 갈등, 대인관계, 전문적 역할갈등, 근무스케줄, 간호인력배치,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죽음과 고통에의 반복적 노출, 위기상황에 빈번히 직면하는 것(Lee, 1992; Lobb & Reid, 1987) 등이 보고되었고,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 간호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실수해서 문책을 받을 때, 행정자가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리고 만족이 결여될 때에도 스트레스를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Scully, 1980). 그 외에 Grough와 Hingley(1988)는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산출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원으로 확신감의 결여와 경험부족 등을 보고하였다.

스트레스는 인간 삶에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생존과 안녕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하지만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하게 되며(Selye, 1965), 그로 인해 근무태만, 실수나 사고발생의 가능성, 소진이나 결근율, 이직률의 빈도가 높아져 결국은 노동시간의 손실과 비용손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hin, 1992). 그러므로 간호사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간호사 개인과 대상자, 병원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리와 중재는 간호사 개인의 안녕과 직업적 발전, 환자간호의 질과 효율적인 인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2.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간호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학습량이 과중할 뿐 아니라 임상실습에서 새로운 환경에 접하여 다양한 위치에 있는 건강요원과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환자들의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실제로 간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부족, 엄격한 행동규범 등 역할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실습 전이나 실습 중에 긍정적,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된다.

간호학생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구체적인 요인을 보면 많은 양의 리포트 작성과 같은 학업의 부담, 임상실무 경험과 지식의 부족(Beck & Srivastava, 1991)이 있고, 학생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역할능력과 의료인들이 기대하는 역할의 차이,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모호성 등이 있다. 결국 학생들은 기대와 어긋나는 실습으로 위축 내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배운 간호의 가치와 이상이 실습현장의 상황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며, 실습환경, 실습내용, 실습계획, 실습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Park, 1982). 또한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자체에도 심한 스트레스, 불안, 불만족을 경험하지만 특히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 수간호사와의 관계, 독자적인 간호역할의 결핍, 단순하고 기능적인 학생업무가 반복될 때 스트레스를 지각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 간호학생이 처음 병동을 접하면서 생소한 병동환경의 적응에 따른 긴장과 두려움 및 압박감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도 경험하게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증진, 학습증진, 간호에 대한 만족감 및 간호의 정체성 확립 등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측면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 & Kim, 1994).

스트레스의 광범위한 유발요인은 개인의 인성적 특성이나 대응방법 및 사회적 지지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았을 때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속적이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는 실습교육에 대한 부정적 상태를 유발하고, 간호교육에 대해 회의를 느끼거나 흥미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됨으로(Hack, 1988)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교육을 경험하거나 지도하면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교와 S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과 이들의 실습지도에 참여한 4개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간호학생 200명, 간호사 300명을 임의표출 하였다.

- 1) 간호사: ① 현재 연구병원에 근무하며 환자간호에 직접 참여하고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고 있는 자  
② 연구목적과 질문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 2) 간호학생: ①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현재 연구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자  
② 연구목적과 질문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 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임상실습 교육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Wolfgang(1988)이 제작한 HPSI(Health Professional Stress Inventory)을 Jo (2001)가 수정 보완한 것과, Jang, Kim과 Kim(1999)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경험유형(Q방법론적 접근)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것, Jeong(1984)이 제작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1명,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간호학생 실습지도 경험이 있는 간호사 6명이 모여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일반적 특성은 간호사가 6문항, 간호학생이 5 문항이며, 임상실습 교육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은 환경(5), 대인관계(8), 교육자(실습자) 역할(12), 간호활동(10)이라는 4가지 요인의 3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스트레스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 한가지에 대해 한번씩 질문하는 형태이다. 또한 스트레스 정도는 '스트레스를 항상 느낀다'는 5점,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게 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간호학생의 Chronbach's  $\alpha$ 값은 .9031, 간호사는 .9520으로 매우 높게 나와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35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200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병원의 간호부를 찾아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가보고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간호사 300부와 간호학생 200부로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간호사는 276부, 간호학생은 175부로 총 45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90%을 보였다. 이 중에서 불충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간호사 273부, 간호학생 17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urses  
(n=273)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N)	Percentage (%)
age (years)	under 25	103	37.7
	26~30	112	41.0
	31~35	28	10.2
	36~40	10	3.7
	41~45	3	1.1
	46 over	1	0.4
	no response	16	5.9
religion	buddhism	125	45.9
	catholicism	20	7.3
	protestant	23	8.4
	none	80	29.3
	others	8	2.9
	no response	17	6.2
marital state	single	172	63.0
	married	85	31.1
	no response	16	5.9
educational level	diploma	194	71.0
	bachelor	57	20.9
	graduate	6	2.2
	no response	16	5.9
clinical career (years)	under 3	81	29.7
	3 over~under 6	77	28.2
	6 over~under 9	52	19.0
	9 over~under 12	18	6.6
	12 over~under 15	17	6.2
	15 over~under 18	7	2.6
	18 over	3	1.1
	no response	18	6.6
nursing unit	medical	42	15.4
	surgical	83	30.4
	ICU	38	13.9
	ER	20	7.3
	NUR	15	5.5
	OR	18	6.6
	OBGY+DR	23	8.4
	others	18	6.6
	no response	16	5.9

ICU: intensive care unit

ER: emergency room

NUR: nursery room

OR: operating room

OBGY+DR: obstetrics and gynecology+delivary room

##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 10.0 Program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차이는 t-test로 비교분석 하였다.
- 4)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스트레스와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간호사들의 나이는 26~30세가 41.0%(112명), 25세 이하가 37.7%(103명)로 전체의 78.7%가 30대 이하의 간호사였으며, 종교는 불교가 45.9%(12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무교가 29.3%(80명)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3.0%(172명)로 과반수 이상 이었다. 교육수준은 3년제 대학 졸업이 71.0%(194명)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은 3년 미만인 29.7%(81명), 6년 미만이 28.2%(77)로 전체의 57.9%가 경력 6년 미만의 간호사들이었다. 간호단위는 외과가 30.4%(83명)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가 15.4%(42명), 중환자실이 13.9%(38명)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간호단위는 10% 미만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 2)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간호학생들의 나이는 21세가 42.2%(73명), 20세가 38.2%(66명)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였으며, 성별은 여자가 99.4%(172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불교가 34.6%(60명), 기독교가 22.0%(38명), 천주교가 8.7%(15명)로 3대 종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무교도 33.5%(58명)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3년제 대학생이 75.7%(131명)로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들의 학년은 모두 3학년(75.7%)이었다. 또한 4년제 대학생은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n=173)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N)	Percentage(%)
age(years)	20	66	38.2
	21	73	42.2
	22	24	13.9
	23	3	1.7
	24	4	2.3
	25 over	3	1.7
sex	female	172	99.4
	male	1	0.6
religion	buddhism	60	34.6
	catholicism	15	8.7
	protestant	38	22.0
	none	58	33.5
	others	2	1.2
educational level	college	131	75.7
	university	42	24.3
educational grade	third(3yr)	131	75.7
	fourth(4yr)	42	24.3

전체의 24.3%(42명)를 차지하였고, 이들은 모두 4학년으로 연구 대상자인 간호학생 모두가 전 학년 2학기 동안 임상실습 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 2.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교육시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교육시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별 평균은 <표 3>과 같다.

간호사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4.0이상으로 높은 점수인 문항은 없었으나,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4.0이상으로 높은 점수인 문항은 ‘간호사의 무관심한 태도(4.12)’, ‘환자나 보호자가 간호학생의 간호활동 거부(4.06)’, ‘간호지식의 부족(4.02)’, ‘간호학생에 대한 타 의료팀의 무시(4.01)’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0이하인 문항은 ‘교육장소 부족(2.98)’으로 나타났으나,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0이하인 문항은 없었다.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를 문항별로 분석하면 35개의 문항 중에서 ‘지침서 부족’, ‘기구와 장비 부족’, ‘부적당한 병원환경’, ‘간호사(간호학생)의 무관심

<Table 3>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stress item betwee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tem content	Nurses(n=273)	Students(n=173)	t	p
	Mean±SD	Mean±SD		
1. education room deficiency	2.98±.89	3.06±1.02	-.344	.731
2. manual deficiency	3.45±.83	3.24±.93	2.831	.005*
3. tool and equipment deficiency	3.55±.89	3.21±.94	4.411	.000***
4. unfit hospital environment	3.72±.92	3.36±1.01	4.378	.000***
5. the difference of theory and clinical practice(teaching)	3.50±.84	3.49±.94	.655	.513
6. the indifferent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nurses)	3.25±1.04	4.12±.91	-7.083	.000***
7. the patient's complaint about nurses	3.63±.99	3.61±.91	1.303	.194
8. the improper appellation about nursing students	3.36±1.04	3.92±.98	-3.892	.000***
9. the insincere answer of patients	3.48±.92	3.57±.95	.119	.906
10. the rejection of nursing student's nursing activities by patients or caregivers	3.58±.91	4.06±.88	-4.467	.000***
11. no support with other medical personnel	3.65±.87	3.51±.91	2.638	.009*
12. the disregard of other medical personnel about nursing students	3.66±1.00	4.01±1.04	-2.603	.010*
13. the discrimin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chool students	3.71±1.05	3.71±1.16	1.021	.309

\*p<.05, \*\*p<.005, \*\*\*p<.0001

〈Table 3〉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stress item between nurses and nursing students(계속)

Item content	Nurses(n=273)	Students(n=173)	t	p
	Mean±SD	Mean±SD		
14. the insufficient knowledge	3.70±.92	3.96±.85	-1.971	.050
15. the indefiniteness of clinical practice's evaluation standard	3.46±.80	3.77±.96	-2.752	.007*
16. the personnel alternation of nursing students	3.75±.94	3.93±1.02	-1.482	.140
17. the difficulty of systematic training	3.83±.84	3.73±.91	1.554	.122
18. the difficulty of showing an example about qualitative nursing skills	3.83±.83	3.56±.82	3.659	.000***
19. the lack of proper cases	3.23±.86	3.46±.96	-1.860	.065
20. the training of laying emphasis on observation	3.26±.85	3.40±.92	-1.065	.288
21. the difficulty of practical applications through theory and knowledge	3.49±.82	3.52±.88	.319	.750
22. the difference of how to learn between nurse and nurse	3.36±.87	3.52±.97	-.118	.906
23. the discriminated training according to colleges	3.26±1.09	3.51±1.18	-.308	.759
24. the burden about the clinical practice(teaching)	3.43±.86	3.79±.96	-2.739	.007*
25. the difficulty of clinical practice's adaptation(education) by personal character	3.05±.95	3.25±1.23	-.583	.561
26. the deficiency of nursing knowledge	3.60±.94	4.02±.84	-3.566	.000***
27. the deficiency of nursing skill	3.44±1.01	3.90±.89	-3.394	.001**
28. the lack of independence to nursing activities	3.46±.91	3.56±.95	-.424	.672
29. the assistant role of doctors	3.73±.88	3.73±.99	.883	.379
30. repetative work	3.73±.97	3.88±.94	-1.074	.285
31. the occurrence of emergency situation	3.84±.98	3.06±1.04	7.953	.000***
32. the intensive concern about the nursing activitis by caregivers	3.16±.95	3.05±1.04	1.439	.152
33. the unkind behavior of co-workers	3.55±.95	3.45±.95	2.936	.004**
34. the lack of co-workers' knowledges	3.30±.91	3.12±.91	3.592	.000***
35. the evaluation about oneself	3.68±.94	3.53±1.03	2.874	.005*
Total	3.52±.55	3.55±.53	.908	.365

\*p<.05, \*\*p<.005, \*\*\*p<.0001

한 태도', '간호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 '환자나 보호자가 간호학생의 간호활동 거부', '타 의료팀과의 비협조', '간호학생에 대한 타 의료팀의 무시', '불명확한 실습 평가기준', '질적 간호 시범의 어려움', '임상실습(지도)에 대한 부담감', '간호 지식의 부족', '간호기술의 부족', '응급상황 발생', '동료의 불친절한 행동', '동료의 지식부족', '자신에 대한 평가' 등 17개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교육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은 <표 4>와 같다. 임상실습 교육시 스트레스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3.52, 간호학생의 스트레스는 3.55로 두 집단 모두 중등도 이상의 스

트레스를 나타냈으며, 간호사 보다 간호학생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요인별로 비교하면 간호사는 간호활동이 3.56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이 3.4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간호학생은 대인관계가 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이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간호사와 간호학생 모두 환경요인이 가장 낮은 스트레스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교육시 지각하는 총 스트레스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환경(p=.002), 대인관계(p=.044), 간호활동(p=.041)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ress factor betwee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Stress factor	Nurses(n=273)	Students(n=173)	t	p
	Mean±SD	Mean±SD		
environment (factor 1)	3.44±.65	3.27±.71	3.086	.002**
personal relations (factor 2)	3.54±.73	3.80±.69	-2.034	.044*
teacher's / student's role (factor 3)	3.48±.57	3.61±.58	-.915	.362
nursing action (factor 4)	3.56±.66	3.53±.62	2.061	.041*
Total	3.52±.55	3.55±.53	.908	.365

\*p&lt;.05, \*\*p&lt;.005

〈Table 5〉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s' stress and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urses(n=273)		Characteristics	Students(n=173)	
	r	p		r	p
age	.019	.771	age	.131	.098
marital state	.060	.349	sex	.007	.928
religion	.002	.980	religion	.123	.119
educational level	.025	.703	educational level	.117	.140
clinical career	.034	.602	educational grade	.109	.169
nursing unit	.151	.018*			

\*p&lt;.05 r= Correlation Coefficient

### 3.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교육시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교육시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표 5>와 같다. 간호사나 간호학생 모두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었으나, 오직 간호사가 근무하는 간호단위 만이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18).

## V. 논 의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시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평균평점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간호사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평균점수는 3.52로 중등도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할 결과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48(Ham, 1997), 3.768(Kim & Moon, 1992),

3.92(Lee, 2000)로 나온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사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중등도 인데 간호사 고유의 업무 외에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까지 떠맡게 됨으로써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으리라 사료된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평균점수는 3.55로 이 역시 중등도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평균평점 5점 만점 중 3.74로 나타난 Ha, Han과 Choi(1998)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2.77로 나타난 Kang(199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Kang의 연구 대상자는 3년제 대학생이 10주와 21주, 4년제 대학교생이 16주와 48주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자였고, 본 연구에서도 3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모두 과거 10주 이상의 실습경험이 있는 자들임을 고려해 볼 때, 두 연구에서 스트레스의 정도가 크게 차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변수가 작용하거나 단순히 측정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나 탐색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간호사가 간호학생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응급상황 발생(3.84)’, ‘체계적인 지도의 어려움(3.83)’, ‘질적 간호 시범의 어려움(3.83)’ 등은 임상실습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체계적인 교육과 표준화된 매뉴얼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하면서 질적인 간호를 학생에게 시범 보여 준다거나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간호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응급상황의 발생은 임상경력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항상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됨으로 임상실습으로 인한 간호사의 스트레스 연구에서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생이 간호사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간호사의 무관심한 태도(4.12)’, ‘환자나 보호자가 간호학생의 간호활동 거부(4.06)’, ‘간호지식의 부족(4.02)’, ‘간호학생에 대한 타 의료팀의 무시(4.01)’ 등은 평균평점 5점 만점의 Choi(1991)의 연구에서도 ‘환자가 학생들의 간호수행을 불신하거나 거부하고 무시하는 경우(4.34)’, ‘병리에 대해 충분한 강의를 없어 실습시 지식부족을 지각하는 경우(4.15)’, ‘간호사가 간호학생을 경계하거나 싫어하고 무관심한 경우(4.02)’가 높은 점수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 자신감을 길러주고, 임상 지도자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생의 경험과 능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와 간호학생 모두 ‘교육장소 부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와 간호학생 모두 현재 실습하고 있는 임상현장이 교육장소로 부적절하다고 느끼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결과 간호학생과 간호사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간호학생의 스트레스가 간호사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총 평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t=.908, p=.365$ )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간호학생과 간호사 모두 임상실습 교육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교육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속성에 대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모두 17 속성이었는데, 간호사가 간호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문항은 ‘지침서 부족’, ‘기구와 장비 부족’, ‘부적당한 병원환경’, ‘타 의료팀과의 비협조’, ‘질적 간호 시범의 어려움’, ‘응급상황 발생’, ‘동료의 불친절한 행동’, ‘동료의 지식부족’, ‘자신에 대한 평가’ 등 총 9문항으로 이들 모두 교육자로서 학생을 가르칠 때 곤란함을 겪는 내용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학생들이 간호사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문항은 ‘간호사의 무관심한 태도’, ‘간호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 ‘환자나 보호자

가 간호학생의 간호활동 거부’, ‘간호학생에 대한 타 의료팀의 무시’, ‘불명확한 실습평가기준’,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감’, ‘간호지식의 부족’, ‘간호기술의 부족’ 등 총 8문항으로, 이들 대부분이 자신에 대한 불명확한 위치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들이다.

간호사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요인별로 비교하면 간호활동이 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3.54), 교육지역할(3.48), 환경(3.44)의 순으로 나타나 간호사는 항상 간호지식의 부족(4.02)과 간호사의 독자성 부족(3.56)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특히 실습환경과 간호활동에 대해서는 간호학생(환경 3.27, 간호활동 3.53)보다 간호사(환경 3.44, 간호활동 3.56)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요인별로 보면 대인관계가 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역할(3.61), 간호활동(3.53), 환경(3.27)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Jun(1984), Kang(1990), Nam(1992), Bai(1999)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Cho(1998)는 환경(3.30)이 가장 낮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임상실습 교육시 학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병동을 실습하면서 다양한 의료인, 환자, 보호자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의 인구학적 특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는 연령, 성별, 종교, 학력, 학년 등이 스트레스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Kang(1990)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오직 간호단위( $r=-.151, p=.018$ )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Choi(1999)의 연구에서 근무 부서별로 다른 스트레스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였다.

학생시절에 간호역할 수행이 잘 되어야만 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업무에 대한 불만족, 비능률 등 간호 실체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가 사전에 해소될 수 있으며, 이들의 예비교육(orientation)에 소요되는 인적, 물질 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간호에 대한 흥미와 욕구, 만족도의 감소는 물론 이요, 인내력과 학습능력이 저하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으로 인한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임상실습 교육시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사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 G시에 소재 하는 D대학교와 S대학의 학생으로 현재 연구대상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학생과 임상실습을 교육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Wolfgang(1988)이 제작한 HPSI을 Jo(2001)가 수정 보완한 것과, Jang 등(1999)이 사용한 도구, Jeong(1984)이 제작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 제작하였으며, 환경(5), 대인관계(8), 교육자(실습자)역할(12), 간호활동(10)이라는 4가지 요인의 35항목으로 구성 된 5점 척도의 설문지이다.

본 연구는 200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가보고 방식으로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간호학생 173부, 간호사 27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Chronbach's  $\alpha$ , descriptive analysis,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실습 교육시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평균은 간호학생이 3.55, 간호사가 3.52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2. 임상실습 교육시 지각하는 총 스트레스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속성에서는 '지침서 부족', '기구와 장비 부족', '부적당한 병원환경', '간호사(간호학생)의 무관심한 태도', '간호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 '환자나 보호자가 간호학생의 간호활동 거부', '타 의료팀과의 비협조', '간호학생에 대한 타 의료팀의 무시', '불명확한 실습 평가기준', '질적 간호 시범의 어려움', '임상실습(지도)에 대한 부담감', '간호지식의 부족', '간호기술의 부족', '응급상황 발생', '동료의 불친절한 행동', '동료의 지식부족', '자신에 대한 평가' 등 17 문항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임상실습 교육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요인별로 분석했을 때 환경, 대인관계, 간호활동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환경과 간호활동은 간호사가 간호학생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에서는 간호학생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구학적 특성과 임상실습 교육시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다른 특성들은 스트레스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간호사의 간호단위만이 유일하게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2. 제 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임상실습 교육시 교육자와 실습자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2. 이론과 실무에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임상실습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Bai, J. H. (1999). A study on the stress and recogni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linical experience in during the clinical experience in the psychiatric unit.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8(2), 411-423.
- Beck, D. L. & Srivastava, R. (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Nursing Education*, 30(3), 127-133.
- Cho, B. H. & Park, Y. J. (1996). Methodological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of the measurement of stress the regulation of stress in rehabilitation nursing. *Chonnam Journal of Sciences*, 1(December), 69-84.
- Cho, N. O.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rtiveness and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Nursing Education*, 4(2), 317-330.
- Choi, H. Y. (199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y and stress factor of nursing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hosun University of Korea, Kwangju.

- Choi, J. H. (1998).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work stress level and it's coping behavior of hospital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Inha University of Korea, Incheon.
- Grough, P. & Hingley, P. (1988). Combating the pressure. *Nursing Time*, 84, 43-45.
- Gu, M. O. & Kim, M. J. (1985). An analytical study of work stress among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Nurs*, 15(3), 39-49.
- Ha, N. S., Han, K. S. & Choi, J. (199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tress respons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8(2), 358-268.
- Hack, M. R. (1988). Stress and impairment among nursing students. *Research in Nursing Health*, 11, 125-134.
- Ham, M. Y. (1997). *A study on relationship of work stress, hardiness and burnout among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hung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Han, K. S. & Cho, J. Y. (1999).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J Korean Acad Nurs*, 29(2), 293-302.
- Jang, H. S., Kim, S. A. & Kim, H. K. (1999). Stress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o clinical practice : Q-methodological approach. *Korean J pediatric nursing*, 5(1), 5-17.
- Jo, H. S. (2001). *A study on the factors of perceived job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the n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yungsoong University of Korea, Busan.
- Jun, H. Y. (1984). *An empirical study on stressor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 with special reference to juni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Kang, H. S. (1990). A study on stres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i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method. *The Journal of Kongju National Junior College*, 17, 185-207
- Kim, N. S. & Moon, H. J. (1992). Study on The Duty Stress and Adaptation Method of The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Adult Nurs*, 4(1), 43-61.
- Ko, S. H. & Kim, K. M. (1994).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3(2), 59-71.
- Lee, J. J. (1992). A study on the working stress of the nurses in a certain area. *Annual Bulletin Taejon Junior College*, 18, 275-296.
- Lee, K. J. (2000). *The 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degree,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general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Lobb, M. & Reid, M. (1987). Cost-effectiveness at what price an investigation of staff stress and burnout.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12(2), 59-66.
- McCabe, B. W. (1985). The improvement of instruction in the clinical area : A challenge waiting to be mee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4, 255-250.
- Nam, Y. H. (1992). A junior college stressor and stress degree in clinical practice of the nursing students. *Annual Bulletin Andong Junior College* 14. 145-176.
- Park, H. O. (1981). *The exploratory study of stressor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in Clinical fie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Scully, R. (1980). Stress in the nurs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May, 912-915.
- Selye, H. (1965). The Stress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5(3), 97-98.
- Shin, Y. K. (1992). *Organizational Behavior*, Seoul, Da-San publishing Company.
- Sung, K. S. (1984).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or and nurses personal characterist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Tierney, M. J. G. & Strom, L. M. (1980). Stress : Type a behavior in the nurs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8(5), 915-918.

**-Abstract-**

Key words : clinical nursing education, stress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ress that i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nurses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Lee, Mi Aie\* · Shin, Young Jin\*\* · Park, Jeoung Sook\*\*  
Kwon, Sam Sook\*\*\* · Kwon, Sun Ju\*\*\* · Kim, Shin Jung\*\*\*  
Lee, Hyang Nyon\*\*\**

**Purpose**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level of stress that is perceived by nurses and nursing students and promote the effect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Method** : the questionnaire measuring the level of stress was developed by researchers and distributed to 200 nursing students and 300 nurses in three provincial city, Korea. The data was collected by self-reporting from March 1 to 15 of 2002. For data analysis, SPSS/PC was used.

**Result** : The stress score of nursing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nurses. But it was not significant different in statistics. The items that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were 17 items among the 35 items. The factors that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were 3 factors among the 4 factors. In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ir stress, the only nursing unit had a relationship to their stress.

**Conclusion** : The level of stress being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nurses was no significant different in statistics and the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had a relationship to their stress was only the nursing unit.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upervisor, Dongguk Medical Center

\*\*\*Charge Nurse, Dongguk Medical Center